

##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

고양시청소년의회 이윤서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삼송동 교육위원회 소속 이윤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법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내세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제시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입은 안전행정부의 처음으로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근황으로는 기관 주도의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보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며 청소년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니기에 부정적인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정체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활성화 되어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도에도 서울시 의회에 협조를 얻어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청소년 참여 예산제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한 정책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2016년에는 12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에는 모든 중. 고등학교에 200만원씩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올해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1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부여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도 소규모로 사업 대상 학교를 먼저 선정하여 진행하고 서울시와 같이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부여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성과는 활동내용과 계획서를 통해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예산을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 학교의 운영을 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양시

가 교육과 지도를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대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생성하는 과정 중 예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참여예산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정책을 신청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취지로 지역 문제에 대한 청소년 관심 제고와 정책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여 정치적 책임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소 한정적인 참여 예산 정보를 교육과정에서 얻게 됨으로서 참여 민주주의 성숙함을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관련 직업분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핵심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참여의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를 장려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교복 입은 시민'의 일환으로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한 정책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진정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참여 예산제' 발언자 고양시 청소년 교육 분과의원 이윤서 었습니다.